

# 홀트소식

WINTER 2024 VOL.211



# 홀트소식

www.holt.or.kr



## 겨울 이야기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감동의 무대, 제10회 홀트학교 어깨동무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기사 18쪽)



##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경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사 정용근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 (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숙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린다백 (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스티브 모리스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유희정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감 사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 (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 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 산하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2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홀트학교 031)915-2913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014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 02)331-7192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 국제개발협력

홀트 사업장 02)331-7052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 Contents

## 아동·청소년복지

- 06 아동의 삶에 한숨보다 웃음이, 절망보다 희망이 채워지도록
- 08 가장 빛났던 2023년 파랑새, 자립을 마주할 너희들을 응원할게

## 한부모가족복지

- 12 가족사진이 선물해준 우리 가족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 14 위기에 놓인 미혼 엄마의 안전한 출산과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 16 이용자 맞춤 지원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변화

## 장애인복지

- 18 장애비장애 학생의 어울림 축제, 뜨거운 감동의 무대
- 21 제32회 눈높이교육상 수상한 홀트학교 김봉환 교장 선생님, '특별한 후원'으로 후원금 전달
- 22 장애예술인들의 자유로운 비상을 위하여!
- 25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제2회 발달장애인 아름바둑대회'

## 지역사회복지

- 28 열차표 구입부터 우대권 발급까지 '키오스크로 고(GO)! 레일'
- 30 천천히 배우고 다 함께 성장하는 '위드업(with up)'

## 국제개발협력

- 32 소리 없는 세상에 살고 있던 '타망'에게 들려온 희망의 노래

## 참여형 캠페인

- 34 세상에 하나뿐인 '선인장 텀블러'와 함께하는 '기쁜 어른의 빈자리' 캠페인

## 나눔스토리

- 36 한부모 자립을 응원하는 'HD현대1%나눔재단' 플리마켓 열려
- 38 예배로 함께해주신 덕분에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었어요!
- 40 특별한 순간을 '사랑으로 바라보다'
- 42 전국후원회 나눔의 향기가 더욱 퍼지기를

## 44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211호계간 발행일 | 2024년 1월 25일 발행인 | 김경오 편집인 | 신미숙  
 발행처 | 나눔마케팅본부 홍보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홈페이지 | www.holt.or.kr  
 후원문의 | 02-331-7073-6  
 후원계좌 | KB국민은행 :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좋은 사연·좋은 제언 | pr@holt.or.kr 디자인 | 일투디투

## 후원자님, 지구와 자연을 함께 지켜주세요

'좋은 소식지' 대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수신'으로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자연을 아끼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식지 수신 전환방법 : 후원자 상담센터(02-331-7073-7076)로 연락주세요

##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복지사업의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입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는 어떠한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1월입니다.

지난 한 해도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전  
국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대상자  
의 욕구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과 효과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전  
문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오랜 경  
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지원 대상자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  
록 사업의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에도 위기가정아동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장애인과 지역주민,  
해외빈곤아동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

## “발전과 성장, 변화를 이뤄내는 전문종합사회복지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신미숙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  
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홀트아동복지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 변화 속에서도 후원자님들의 응  
원과 격려, 직원 여러분의 합심과 노력으로 2023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사회복지 현장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며, 홀트  
아동복지회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과 성장, 변화를  
이뤄내는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  
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발전하는 전문종합사  
회복지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홀트아동복지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후  
원자님들과 홀트아동복지회 직원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한 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장

신미숙

# 아동의 삶에 한숨보다 웃음이, 절망보다 희망이 채워지도록

통합위기가정지원사업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시작과 그간의 성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외국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더 큰 가족이 되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는 오랜 기간 위기 가정아동과 그 가정에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2020년,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기, 긴급 위기지원사업을 시행하던 홀트아동복지회는 통합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후 지원 항목별로 나뉘어 있던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지금의 통합위기가정지원사업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를 기획하게 됩니다.



## 지켜낸 283가정의 이야기

2021년 시작된 통합위기가정지원사업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는 현재까지 약 3년간 283가정의 주거비·생계비·의료비·교육비 및 심리정서 상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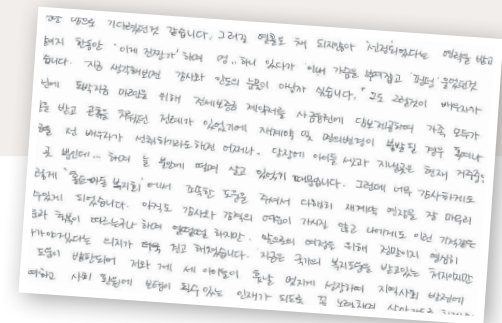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사례관리기관 담당자들의 정성이 담긴 수많은 지원신청서에는 어느 것 하나 긴급해 보이지 않은 사연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주거비와 관리비 미납으로 하루하루 독촉과 퇴거명령에 고통받는 한부모 가족의 사연, 생활비 마련조차 힘겨워 장애아동의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는 가족의 사연,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중증지병으로 쌓여가는 병원비에 마음을 추스를 여유도 없는 가족의 사연 등 저마다 벼랑 끝까지 내몰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심각한 주거불안 해결, 새로운 시작의 발판

사례 1 ○ 반복되는 남편의 도박과 가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 중인 보호자는 주거지 계약만료 시점을 앞두고 체납된 월세와 관리비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심각한 주거불안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초·중등생인 자녀들은 부모인 보호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조만간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해당 가정의 주거비와 관리비 체납분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해당 가정은 무사히 주거지 계약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세 자녀의 보호자는 홀트아동복지회로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 어둠던 삶에 비추는 한 줄기 빛

사례 2 ○ 2명의 아동을 양육 중인 보호자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 의료비를 감당해 보았지만, 길어지는 치료기간과 불어나는 의료비로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앞에 망연자실해 있는 가정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는 보호자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가정의 보호자는 “삶이 막막했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만 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홀트아동복지회의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을 때, 어둠던 삶에 비추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이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동은 결코 혼자 자랄 수 없고, 아동을 위한 복지는 결국 그 아동의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에게 가정은 온 세상이기도 합니다.

아동이 바라보는 세상이 한숨보다는 웃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절망보다는 희망이 채워질 수 있도록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과 가정을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서혜림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비로 사용됩니다.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 위기가정지원 캠페인 후원

후원문의 02-331-7073~8  
후원계좌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 가장 빛났던 2023년 파랑새, 자립을 마주할 너희들을 응원할게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5기 성장발표회 및 수료식



▲ 강도현 MC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5기 성장발표회 및 수료식이 지난 12월 9일,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기 명예 멘토 강도현 MC의 사회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는 지난 2년간 열심히 달려온 파랑새들과 이들의 자립을 온 마음으로 함께한 멘토님, 그리고 멀리서 발걸음해준 홀트인터내셔널(HICS)에서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스무 살을 맞이할 파랑새들을 응원하러 함께 가볼까요?

## 동아리 활동으로 함께한 가장 빛났던 순간

수료식을 통해 지난 2년간의 멘토링 여정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랑새 5기 사업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의 각 지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했는데, 2년간 매월 만남을 가진 파랑새 사업 참여자들은 가장 의미 있는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을 뽑기도 했습니다. 총 17개 동아리들 중 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5개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 회장님 격려사 모습



▲ HICS의 폴킴 부장님

## 1 All 4 U



포유 동아리에서는 성인이 되는 멘티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기대 어른’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 동아리에는 파랑새 1기에 참여한 멘토가 함께해 누구보다 멘티들의 자립 과정을 자세히 알고 마주할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포유 동아리는 파랑새 1기 사업에 참여했던 멘티들, 웹개발 전문가 멘티들로 구성된 동아리와 연합 활동을 펼쳤는데, 약 스무 명의 인원이 모여 함께 글램핑을 하며 자립의 현실에 대해 나누고 하나가 되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과 당사자들이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2 BEAUTY



뷰티 동아리는 직업 관련 활동뿐 아니라 여행과 기념일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늘 내 편인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일치기 강릉 여행, 크리스마스 파티와 생일 파티, 한창 유행했던 ‘자이언트안’ 가방 만들기 와 한강 피크닉을 진행하며 모두 허물 없는 친구처럼 하나가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3 HIGHER



홀트아동복지회 충청지부의 자랑인 HIGHER 동아리는 친구들이 잠재력을 기르고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히, HIGHER 동아리에는 파랑새 1기 멘토로 참여한 서은경 멘토가 함께했는데, 파랑새 사업을 통해 성장한 멘토의 자립 이야기를 직접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HIGHER 동아리에 참여했던 한 멘티는 “사는 곳과 생활방식이 서로 달라도 우리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풀리려 할 때마다 옆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서로를 믿고 의지했다”고 참여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HIGHER 동아리, 파랑새 사업은 끝났지만 늘 서로에 대한 온기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 4 철학 조



‘철학’이라는 다소 딱딱한 동아리 이름이 무색하리만큼 가장 많은 만남을 가진 동아리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철학’으로 하나 된 멘토와 멘티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진로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산책’이라는 같은 취미를 가졌기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구 철학 조의 멘티는 이날 수료식에서 멘티 대표로 멘토링 소감을 발표했는데, 늘 ‘불’과 같던 뜨겁고 아픈 자신의 삶을 옆에서 이끌어준 멘토가 ‘소화기’로 꺼준 과정이 멘토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멘토 역시 깜짝 선물로 멘토 대표로 소감을 발표하며, 모든 멘티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애들아. 늘 기도하마.” 어떤 말이 이보다 더 감동적일 수 있을까요? 파랑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 자체가 소중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세요.



▲ 동아리 친구들과 찍은 사진

#### 5 창원 있는 부산 조



지역명이 들어간 특별한 조가 있습니다. 수료식 당일 가장 멀리에서 온 동아리로, 무엇보다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멘토들과 멘티들이 모인 동아리였습니다. 사회복지 전공 멘토와 유아교육 전공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진로를 멘티들과 나누며 서먹했던 첫 만남을 뒤로하고, 워크숍 활동과 부산의 남포지역 투어를 통해 친구처럼 하나가 된 아름다운 동아리였습니다.



▲ 창원 있는 부산 조 멘토와 멘티



▲ 수료식 축하 인형꽃다발

#### 네 꿈을 응원해

이날 수료식에는 동아리 발표뿐 아니라 우수한 진로 결정 성과를 낸 멘티들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파랑새 지원을 ‘비행기 관제탑’ ‘디딤돌’ ‘스타트업’ ‘표지판’ ‘자립의 길잡이’로 표현했습니다. 나아가 모든 참여자들은 파랑새 사업에 대해 “내가 가야 할 곳을 안내해주고, 단계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과 힘이 되어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시각디자인과·태권도학과·제과제빵학과·사회복지학과·실무중국어과 등 각자가 선택한 진로와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홀트아동복지회와 현대백화점그룹은 늘 파랑새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소감발표



▲ 우수멘티 시상



▲ 강한국 멘토

#### 자립준비청년 멘토가 파랑새에게 전하는 메시지

수료식 마지막 순서로 멘토가 멘티에게 전하는 영상편지를 시청했는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이자 멘토로 참여했던 강한국 멘토는 멘티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아직 많고, 기회 역시 많다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었어. 지금처럼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고 지내자. 사랑한다, 친구들아.”

2년 동안 실시된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5기 사업의 긴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파랑새들의 자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31명의 멘토님과 전국 확장으로 협력해주신 홀트아동복지회 충청·대구·부산지부, 든든한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은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글 아동복지팀 이채영

# 가족사진이 선물해준 우리 가족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한부모가족 사진촬영 'mom(맘)편한 가족앨범' 지원사업과 후기 공모전 소개



여러분은 '가족사진'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나요? 아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멋지게 차려입고 사진관을 방문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날 텐데요.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를 증진하고자 사진촬영 지원사업 'mom(맘)편한 가족앨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5년간 292가정에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선물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mom(맘)편한 가족앨범'은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의 후원으로 2023년 현재까지 총 292가정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2022년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일어난 일들을 추억으로 남기는 의미 있는 기회였고, 아이와 함께 추억을 가족사진에 담을



수 있어 즐겁고 기뻐했습니다"라는 훈훈한 촬영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2023년에도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mom(맘)편한 가족앨범'을 실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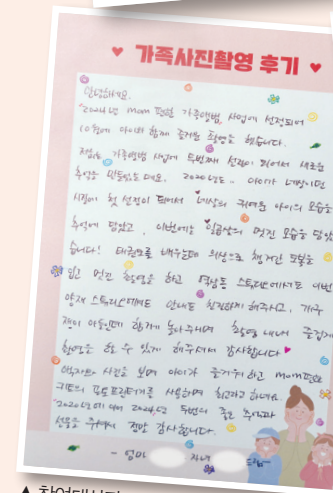
올해에는 서울, 대전, 부산 3개 지역의 스튜디오에서 선정된 50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함께 포토프린터기, 앨범, 액자 등으로 구성된 'mom(맘)편한 키트'를 추가로 지원해 행복한 순간이 가족들 마음에 오랫동안 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채운 사진촬영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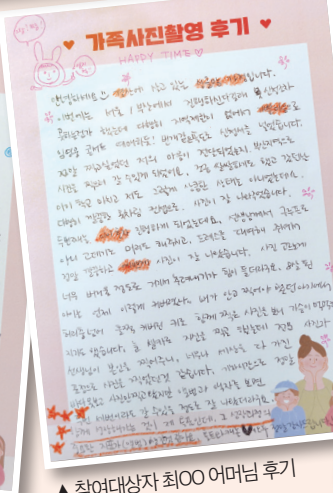
가족사진 촬영 사업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공유하기 위해 '사진촬영 후기 공모전'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소중한 후기가 추운 겨울을 따뜻한 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접수된 후기들 중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2건)과 우수상(2건)을 선정하여, 추후 시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후기들을 감상해볼까요?



▲ 참여대상자 성OO 아동의 후기 그림



▲ 참여대상자 정OO 어머니 후기



▲ 참여대상자 최OO 어머니 후기



▲ 참여대상자 김OO 아동의 후기



▲ 참여대상자 최OO 어머니 후기

**“우리 모두 힘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는 위기상황에 놓인 한부모의 '가족을 지켜주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바라는 행복한 꿈에 후원자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글 한부모지원센터 조성민

# 위기에 놓인 미혼 엄마의 안전한 출산과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024년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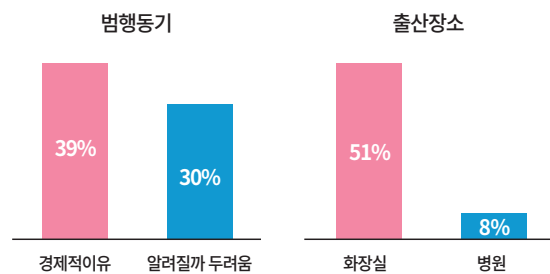


지난 6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시신 2구가 발견되며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무적아'를 둘러싼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현실,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엄마의 힘겨운 삶과 위기에 놓인 아기들을 돕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는 2024년부터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엄마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발단으로 진행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심리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은 '일단 상황 종료'를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친모 혼자인 경우가 70% 이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버랑 끝에 몰린 엄마의 선택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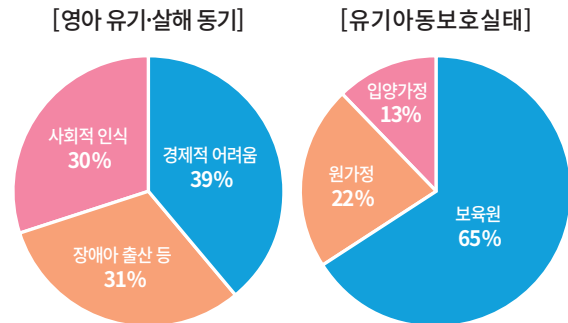
[최근 10년 영아 유기·살해 판결문 분석]



출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22)

## 가난과 편견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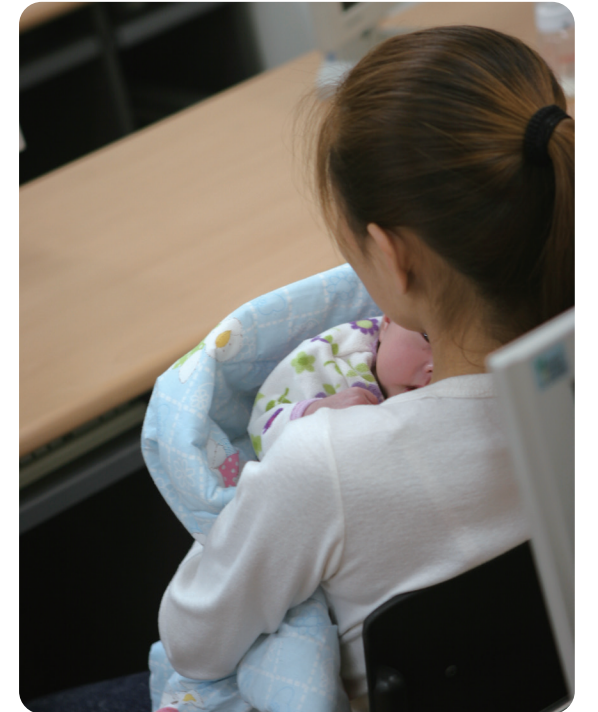
그렇다면 엄마는 왜 갓 태어난 영아를 유기 또는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후 아기는 어디에서 자라는지 다음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2022)

## 엄마를 보호하는 일이 아기를 지키는 일

위기에 놓인 엄마와 아기의 안전한 출산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4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산모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 밖 출산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와 출생통보제(부모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기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여 홀로 아기를 양육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익명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의 필요성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미혼모가 직접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상황에 놓인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안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상황에 놓인 임신 중인 미혼모</li> <li>12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미혼모 (단,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li> </ul>			
실시기간	2024년 1~12월 / 연중 수시모집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 미포함 내용	지원금액	
	의료비	산전진료비, 의료비, 약제비, 산후도우미비	물리치료비, 치과치료비	가구당 최대 200만원 이내
	양육비	출산용품비, 아동양육물품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
	생계비	공공요금(가스·수도·전기) 관리비, 식료품비, 생필품비	케이블tv요금, 전화요금, 보험료, 교통비, 의복구입비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
주거비	연체임차료, 일시주거비	보증금, 인테리어비, 이사비용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는 보호받아야 하고 태어난 아기는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위기상황에 놓인 엄마와 아기의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업문의 및 신청 : 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0~4 / family@holt.or.kr

글 한부모지원센터 박혜정

# 이용자 맞춤 지원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변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및 운영 내용 소개



▲ 고운돌 프로그램 참여 모습



▲ 광주클로버 프로그램 참여 모습



▲ 대전클로버 프로그램 참여 모습

2023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법안의 내용과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관련 안내 및 운영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 대상별로 유형을 구분해 운영되어왔습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지원의 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되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구분·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홀트아동복지회도 '양육지원시설'로 전국 5개 도시, 6개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 입소 자격 또한 변경되어 미혼한부모,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도 입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입소기간도 기본

2년에서 기본 3년으로 연장되었고, 추가 연장 기간도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변경 내용

입소대상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미혼한부모,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지원내용	주거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자립준비지원, 양육지원 등
입소기간	기본 3년 거주,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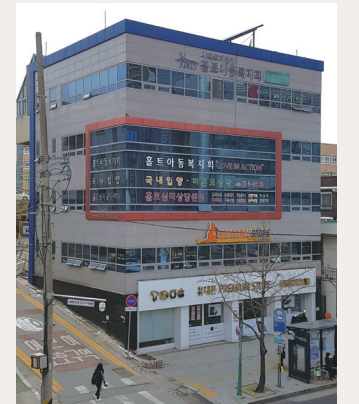
▲ 아침들 책놀이터



▲ 대전클로버 시설 내부



▲ 아름들 전경



▲ 대구클로버 전경

한편,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 교육·훈련 또는 구직활동, 창업 중인 경우, 학력인정 시험을 준비 중인 경우, 장애 또는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입소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고운돌과 아침들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부담을 감소시키고, 안정된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지원사업(LH보유 매입임대주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10호, 고운돌)와 대전광역시(10호, 아침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한부모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자립의 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보증금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한부모는 월세와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입주 자격 재심사에 따라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이 시설 이용을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 자립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글 홍보팀장 오진희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보

아름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8길 32-3 02-334-4614
고운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6번길 17-3 031-216-9004
아침들	대전시 중구 보문산로 329 042-585-3004
대전클로버	대전시 중구 사덕로 79번길 78 042-583-4006
대구클로버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4층 053-654-0181
광주클로버	광주시 서구 화운로 164 홀트광주복지센터 4층 062-361-5900



▲ 주거지원사업 임대주택 내부 모습



▲ 홀트 예그리나오케스트라&국악오케스트라 공연

## 장애·비장애 학생의 어울림 축제, 뜨거운 감동의 무대

### 홀트학교 제10회 어깨동무음악회 현장 스케치

지난 10월 25일, 홀트학교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뛰어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2023 제10회 어깨동무음악회'가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주최교인 홀트학교를 비롯해 고양시일초등학교, 광성드림학교, 일산은행초등학교, 한국경진학교 5개교 학생들은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 홀트학교 장애학생 음악교육 연구회

### 10회까지 이어온 어깨동무음악회에 축하를

홀트학교는 홀트아동복지회가 1962년 설립한 특수교육기관으로, 홀트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공과 등 29개 학급에서 18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깨동무음악회는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교육기관'의 특수교사와 예술강사로 구성된 '장애학생 음악교육 연구회'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정성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준비했는데요. 홀트학교의 김봉환 교장 선생님은 축사를 통해 "어깨동무음악회가 10회를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홀트학교 장애학생 음악교육 연구회 박에스터 선생님을 비롯한 20여 명의 선생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최선의 기량 선보인 감동의 무대

축사에 이어 홀트학교의 '세로토닌드럼클럽'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고양시 관내 학생들의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홀트학교에서는 세로토닌드럼클럽 외에도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앙클롱오르프 연주팀, 홀트 합창단, 뮤지컬팀, 중학교 2학년 1반 뮤직드라마팀, 예그리나&국악오케스트라가 출연했으며, 고양시 관내 학교 중 한국경진학교 중창단, 일산은행초등학교 사물놀이 동아리, 태권도 공연을 펼친 광성드림학교의 광성 타이거즈 1기, 고양시일초등학교 희망소리 합창단과 4학년 4반의 뮤지컬팀이 무대에 올라 저마다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2023년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홀트 예그리나&국악오케스트라는 지난 9월에 열린 '16회 TJB전국 장애학생 음악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 창단된 세로토닌드럼클럽은 지난 10월에 열린 '2023 세로토닌드럼 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각 순서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때로는 깊은 울림을 주는 뮤지컬 대사를, 때로는 마음을 합한 노래와 연주를 최선을 다해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 유튜브 통해 음악회 실시간 생중계

이번 음악회는 유튜브로 영상이 송출되기도 했는데요. 각 순서의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사회를 맡은 고등학교 2학년 공병훈(현 학생회장)·이의현(전 학생회장) 학생이 관객들의 소감 발표와 퀴즈 풀기, 경품 전달, 그리고 유튜브 응원 댓글을 읽어주는 등 매끄러운 진행으로 관객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출연 학교 및 관내 특수학교의 학교장, 홀트 아동복지회 산하기관장, 행사를 후원하는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교양교육지원청, 고양문화재단 및 BGF복지재단 관계자와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이 참석해 학생들이 펼치는 화합의 공연을 축하해줬습니다. 어깨동무음악회는 내년에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전 출연진 무대 앞으로 나와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한 뒤 모든 순서의 막을 내렸습니다.



▲ 사회를 맡은 공병훈·이의현 학생



### 지도 선생님과 참가 학부모 미니 인터뷰

#### “학생들의 문화예술 잠재력 극대화 위해 노력”

어깨동무음악회는 2013년 홀트학교에서 장애학생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이 각자의 재능과 시간을 쏟아가며 연구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지만, 2017년 장애학생문화예술 거점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장애학생 음악교육 연구회라는 조직으로 확대되어 20여 명의 특수교사와 예술강사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연구회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에스터 선생님**  
(홀트 장애학생 음악교육 연구회장/  
예그리나 오케스트라 지휘)



▲ 홀트 합창단 공연

### “공연 참여로 자연스럽게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뤄져”



**최영숙 선생님**  
(고양신일초 ‘희망소리 합창단’ 지휘/4학년 4반 뮤지컬 지도)

박에스터 선생님과 함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음악적으로 교류할 방법을 고민하다 어깨동무음악회를 만들게 됐어요. 고양시 관내에는 특수학급조차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라 장애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공연에 참석하면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이뤄져 교육적 효과가 높았어요. 게다가 공연 자체가 너무 좋아서 몇 해 전부터는 합창부만이 아니라 저희 반 아이들도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좋지만, 함께 관람하는 학부모님들로부터 장애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 고양신일초등학교 희망소리 합창단 공연

### “최선을 다하는 장애 학생 모습에 큰 감동”

**참가 학부모**  
(고양신일초 ‘희망소리 합창단’ 단원 어머니)

어깨동무음악회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했고,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온 정성을 기울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이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장애 학생들의 모습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각자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 잘 살려내”



**김보미 선생님**  
(홀트 뮤지컬 지도)

뮤지컬은 특성상 노래, 춤, 연기를 함께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런 동작을 조금 힘들어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노래나 춤 등 각자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잘 살려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선보였어요. 우리 팀만의 독보적인 점은 자기가 맡은 부분의 노래를 다 녹음했다는 점이에요. 매년 프로 뮤지컬 가수처럼 자기 목소리가 담긴 음원을 하나씩 내는 셈이지요.



▲ 홀트 뮤지컬 공연

### “무대 경험 때마다 쑥쑥 성장하는 아이들”



**전은지 선생님**  
(세로토न्द्र럼클럽 지도)

모듬북은 리듬감만 익히면 누구든지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현재 세로토न्द्र럼클럽은 초등부터 고등까지 13명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졸업생들이 재능 기부로 함께하기도 해요. 연습할 때 아이들 눈빛을 보면 엄청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무대에 한번 올라갔다오면 쑥쑥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아이들이 서로의 소리를 듣고 맞춰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 ‘세로토न्द्र럼클럽’ 모듬북 공연

글 홍보팀 정진숙



▲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들과 함께한 홀트학교 김봉환 교장 선생님(첫째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 제32회 눈높이교육상 수상한 홀트학교 김봉환 교장 선생님, ‘특별한 후원’으로 후원금 전달

### “장애학생들의 잠재된 꿈을 키워주는 마중물 교육”

홀트학교의 김봉환 교장 선생님은 지난 11월 대교문화재단이 주최한 ‘제32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에서 특수교육 부문 눈높이교육상을 수상하고, 수상을 기념하여 홀트아동복지회 ‘특별한 후원’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김봉환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학습공원으로 조성하고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썼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특수학교 지적장애학생 ‘독도사랑음악회’를 개최하고, 졸업생의 사후지도에도 노력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성장에 최선을 다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수상을 계기로 특별한 후원에 동참하신 김봉환 교장 선생님은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홀트학교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핵심가치를 믿고 적극적

으로 도와주신 홀트아동복지회 가족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깊이를 더하고 차별화를 꾀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꿈꽃을 피우고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김봉환 교장 선생님(왼쪽에서 세 번째)의 수상을 축하하는 지인들과 함께

# 장애예술인들의 자유로운 비상을 위하여!

제1회 'gallery 비상' 미술공모전 시상식과 전시회 이야기



지난 11월 14일,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전국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제1회 gallery(갤러리) 비상 미술공모전 시상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미술공모전 상상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7주 동안 접수된 총 53건의 작품을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총 33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고양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상자들과 가족 그리고 내빈들이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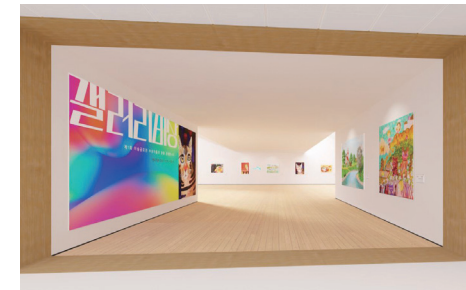
## 'gallery 비상' 전시관, 장애인 예술 지원사업의 시작

전시회를 개최한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예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공예, 목공예, 토탈공예, 미술, 도예, 디지털드로잉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성인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아르떼아카데미' 이용자의 작품을 디지털화해 온라인 전시회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이번 제1회 gallery 비상 미술공모전 개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자와 보호자 그리고 관람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이용자들의 작품 전시회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장애인 작품의 완성도에 놀라며 장애인 예술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즐길 때, 건물이나 시설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www.갤러리비상.com)과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휠체어 경사로에 gallery 비상 오프라인 전시관도 구축하였습니다.



▲ 오프라인 전시관



▲ 온라인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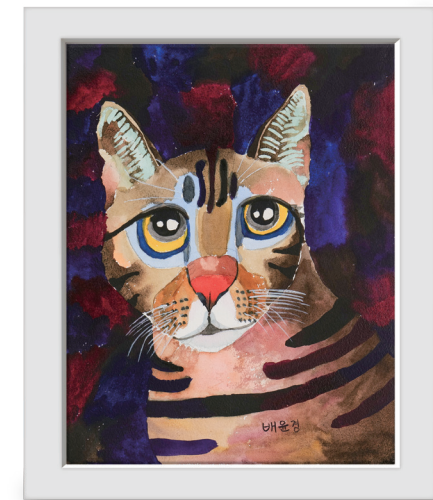
##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이 희망과 치유의 계기 되길

설레는 마음을 안고 수상자들과 가족들이 시상식을 위해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을 비롯해 고양시 국회의원과 유관기관장, 고양미술협회 심사위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고양미술협회 소속 고현희 심사위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작품을 출품해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작품 활동을 통해 희망과 치유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설레는 시상식 순서.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릴 때마다 단상에 나와 상장과 상금판넬, 꽃다발을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엔 긴장한 모습을 보였던 수상자들도 행사가 끝난 뒤 자신의 작품을 뽑아준 것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상(상금 100만 원)을 수상한 배윤경(작품명 '밤고양이')님은 "나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림 연습을 하겠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가 수상소감을 영상으로 보내와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상자들은 저마다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들었고, 무엇이든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등 이번 기회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더욱 노력하여 또 다른 꿈을 향해 도전해보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 배윤경님 작품 '밤고양이'



▲ 제1회 gallery 비상 미술공모전 수상자



▲ 홀트아동복지회이사장상 수상자 배윤경님

### 작품으로 연결되는 우리

시상식에 이어 내빈들은 gallery 비상 전시관에서 제1회 gallery 비상 미술공모전의 시작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에게 작품설명을 듣기도 하고 관람객들과 사진도 함께 찍으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 '디지털플레이존'에 설치된 스마트보드를 활용하여 온라인 전시관에 접속, 작품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수상자들과 내빈 그리고 관람객들 모두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미술공모전 수상작들은 gallery 비상 온라인 전시관(www.갤러리비상.com)과 휠체어 경사로를 활용하여 구축한 오프라인 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allery 비상 전시관을 통해 다양한 색깔로 예술인들의 기량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시관을 관람한 한 관람객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gallery 비상 전시관은 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가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양시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장애인식개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특히 장애인예술작가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gallery 비상 미술공모전'을 통하여 장애인 예술작가 양성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변화에 함께해 주실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스마트복지기획팀  
본부 홍보팀장 오진희



▲ 작품 설명 중인 배운경 수상자



▲ 참석자들의 전시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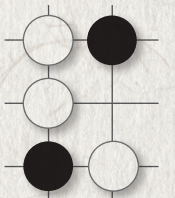


▲ 테이프 커팅식

##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제2회 발달장애인 아름바둑대회'

### 제2회 발달장애인 아름바둑대회 현장 스케치와 아름바둑 개발자 김명완 대표 인터뷰

지난 11월 11일, 발달장애인의 놀이문화 확산과 아름바둑교육 활성화를 위해 홀트강동복지관과 ㈜아름바둑이 공동 주최하고, (재)한국기원이 공동 주관한 '제2회 발달장애인 아름바둑대회'가 홀트아동복지회 6층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바둑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바둑대회의 현장, 그날의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 열정 가득했던 아름바둑대회 이야기

“아름바둑대회 참가 선수들이 지금 입장합니다!” 기수식을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가 나오자 웅장한 음악과 함께 아름바둑대회 선수들이 각 기관 대표 손뼉말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선수들의 부모와 기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큰 박수갈채로 선수들을 반겨주었습니다. 기수식에 이어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 신인희 홀트강동복지관장은 환영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아름바둑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확대되고 아름바둑이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는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환영사가 끝난 뒤 곧바로 참가 선수들의 아름바둑 대국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름바둑은 한마디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바둑으로, 바둑의 기본원칙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어려운 규칙을 없애고 일반 바둑에는 없는 숫자와 스코어보드 등을 이용하여 발달장애인의 학습방법에 맞추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바둑입니다.



▲ 환영사



▲ 기수식



▲ 참가자들의 대국 장면

### 75명의 선수들, 진지한 태도로 바둑에 몰입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끌벅적하던 경기장이 대회 시작 알림과 동시에 고요해졌습니다. 대국이 시작되자 대회 전 해맑게 웃으며 천진난만하던 선수들이 어느새 진지한 표정으로 바둑 두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홀트강동복지관을 비롯해 강남세움복지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종로장애인복지관, 총 8개 기관 75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20명의 프로기사가 심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홀트아동복지회 1층 공감홀에서는 아름바둑을 개발한 김명완 (주)아름바둑 대표가 참가자 부모를 대상으로 아름바둑 관련 부모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름바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아름바둑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우리 모두가 주인공, 행복한 시상식

아름바둑대회는 2인 1조로 편성하여 최대 4경기로 진행되고 각 라운드마다 승패가 갈립니다. 하지만 경기가 리그전으로 진행되어 참가자 모두가 끝까지 함께 바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일어서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승패를 떠나 서로 응원하며 진정 바둑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등부터 3등 그리고 우수상, 최종 결과에 따라 우승과 준우승

이 나누었지만 참여한 모든 선수가 이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응원을 가장 크게 한 선수에게 주는 응원상, 가장 열심히 참여한 사람에게 주는 열심상 등 대회 참가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멋진 상장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두에게 잘했다는 환호와 축하한다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에서 초등부문에 출전한 선수의 어머니는 아름바둑으로 인한 자녀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지시사항에 잘 따르면 좋겠다는 작은 목표로 시작했어요. 바둑이 쉽게 풀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날도 있잖아요. 초반에는 어렵다고 싫어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재밌어 하고 이긴 날에는 더 신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는 날이 있으면 이기는 날도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아이의 인지능력도 훨씬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아름바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회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참가했던 선수들은 입을 모아 다음 대회를 기대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대회 나가고 싶어요!” “다음에는 꼭 이길 거야!” “오늘 아주 재밌고 신났어요!”

아름바둑이라는 놀이문화 안에는 장애-비장애의 경계가 없고 ‘다름’이 아닌 ‘같음’만 있으며 “우리 모두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단어 ‘우분투’의 의미와 결을 같이합니다.

앞으로도 아름바둑을 좋아하고 즐기는 이들의 멋진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 시상식

“여기에 올 때만 해도 긴장해서 아침밥도 잘 못 먹고 왔는데 이렇게 대회에 참여해 보니 즐겁고요. 이런 대회가 앞으로로도 발전되어서 많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참가 소감 / 박민규(성모자애복지관)

“언젠가 아이가 아름바둑을 통해서 사회성이나 인지능력이 향상되면 아이와 우리 가족이 바둑을 함께 두며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될 것 같아요. 다양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취미생활로 아름바둑이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 자페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부모

“아름바둑으로 발달장애인을 돕는 것, 제 평생의 미션으로 삼았어요”



아름바둑 개발자, 김명완 (주)아름바둑 대표(프로기사 8단) 인터뷰

Q. 아름바둑의 장점이자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름바둑의 특징은 2명이 한 팀을 이루는 2인1조 경기로 자신만 잘 뒀도 안 되고 옆사람만 잘 뒀도 안 되는, 둘의 협력으로 한 수를 제대로 뒀서 집을 만들어야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만큼 자페스펙트럼을 가진 아동들에게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감능력 및 사회성과 바둑 규칙에 따르는 인내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 역시 이런 긍정적 효과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Q. 대표님께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아름바둑을 연구, 개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엘리트 스포츠로 알려질 만큼 어렵기로 소문난 바둑의 좋은 점을 살려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도 바둑을 둘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미로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라면 자폐아동의 부모님을 만나면서였습니다. 마침 저도 부모가 되었고요. 어느 날



▲ 김명완 대표 강의 모습

미국에서 바둑을 가르치는 제자로부터 자폐아동들을 위한 바둑을 개발해볼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제자의 친구가 세 명의 자폐아동을 둔 아버지였거든요. 제자의 제안을 듣고 정말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여러 학부모님들을 만나 발달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발달장애인 및 자폐아동을 이해하는 교육도 받았어요. 2018년부터 발달장애 개선에 도움이 되고 교육적 효과가 있는 아름바둑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아름바둑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름바둑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돕는 일을 제 평생의 미션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Q. 주식회사 아름바둑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아름바둑의 확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데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소개해주신다면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아름바둑 교육 프로그램이 2019년 재단법인 한국기원을 통해 문체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아름바둑이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아름바둑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을 시작해 지금까지 29명의 프로기사를 아름바둑지도사로 배출했어요. 현재는 14명의 아름바둑지도사가 9군데의 복지관에서 약 100여 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아름바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발달장애인의 교육적 효과와 치료를 위한 아름바둑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홀트강동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결실로 2023년 2회째를 맞는 ‘발달장애인 아름바둑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주)아름바둑은 아름바둑교육지도사 양성과 재교육 및 평가, 아름바둑대회 주최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글 홀트강동복지관 기획지원개발팀 신승훈 본부 홍보팀 정진숙

# 열차표 구입부터 우대권 발급까지 '키오스크로 고(GO)! 레일'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대상 디지털문해교육 체험활동 생생 후기



▲ 부산타워 앞에서 단체사진 촬영

모바일과 키오스크의 사용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 디지털기기의 사용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2023년 8월 8일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평생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모바일 및 키오스크 등 디지털문해교육 '키오스크로 고(GO)! 레일'을 실시했습니다.

## 이제 만반의 준비 끝! 떠나자 부산으로~

지난 10월 31일, 디지털문해교육 체험활동 중 하나로 초급반(6명)과 고급반(6명) 총 12명의 어르신들과 강사님이 부산으로 키오스크 체험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체험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대한 키오스크를 활용해 다양한 상황과 영역(식당, 카페, 은행 등)에 맞춰 여러 차례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 덕분에 출발지점인 동대구역에서 실제 키오스크를 마주했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문제없이 티켓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며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여행하는 설렘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부산역에서 승차권과 우대권 발급 장면

## 시행착오와 고생도 즐거움으로

부산타워로 가기 위해 부산역에서 남포역까지 지하철을 타야 할 때도 평소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로 우대권을 잘 발급받아 손조롭게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음료를 마실 때도 키오스크를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음료를 직접 선택하여 결제하였습니다.

디지털문해교육을 받기 전, 어르신들은 기계(키오스크)가 아닌 말로 점원에게 직접 주문했는데, 그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게 된 지금은 그런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의견을 전해주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부산타워를 가기 위해 어르신들은 평소보다 많이 걸어 지친 모습을 보였지만, 단 한 사람도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입장권을 발급받고, 라운지에서 부산 시내를 구경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0, 30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한 단체사진 찍기에도 도전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로 찍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인화된 사진을 보고 어르신들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 부산타워에서 키오스크로 단체사진 찍기에 도전!

## 달라진 내 모습에 자신감도 '뽀뽀'

다시 동대구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과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어르신들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한 어르신은 "지금까지 키오스크나 휴대폰으로 무엇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이 달라졌고, 왜 진작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2024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장 먼저 연락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준 복지관에 매우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디지털문해교육이라 참여자가 만족할지 또 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진행하면서 점점 발전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2024년에 다시 디지털문해교육을 진행할 때는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향상시켜 더 완성도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과 강사님, 그 외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팀 류주현



▲ 출발지점인 동대구역에서



▲ 동대구역에서 기차표 끊기



▲ 가족애 프로그램-엄마와 함께 나들이

## 천천히 배우고 다 함께 성장하는 ‘위드업(with up)’

###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 아동 지원사업 위드업(with up) 성과 돌아보기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2년부터 복권기금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느린학습 아동 지원사업 ‘위드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드업’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사이의 아동 중 경계선 지능 아동 및 느린학습 아동들에게 기초학습지도, 사회적응, 가족관계 개선 등을 통해 기초학습능력 및 사회기술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조금씩 변화하는 아이, 윤지

복지관에 처음 방문했을 때 가족 외에는 낯설고 무서워 타인과 말을 한 마디도 하지 못하던 아이, 윤지(가명, 8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윤지는 한글을 전혀 모르고 숫자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3과 4를 헷갈려 했습니다. 그랬던 윤지가 이제는 문장에서 아는 단어를 찾고, 조금 헷갈려 하면서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가며 1부터 10까지 바르게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쯤~꿈 알 것도 같아요”라며 공부에 감을 잡았다는 윤지의 한마디!

엄마는 “학교에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 사회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스콘 만들기



▲ 사회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서핑



▲ 긴장 완화를 위한 음악활동



### 천천히 일상의 경험을 늘려가며

위드업 참여 아동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에 남아 나머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국어, 수학 과목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음악활동과 신체활동 및 체형활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애(愛)’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일대일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아동들은 차근차근 1부터 10까지, ㄱ부터 ㅎ까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월 1회 실시하는 사회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가집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놀이체험관 방문, 도자기 체험하기, 서핑, 물놀이-롤러스케이트 배우기, 머랭쿠키 만들기, 캔들 만들기, 캠핑 등을 실시했습니다.

긴장완화를 위해 시작한 음악활동도 아이들이 즐기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처음 접할 때 어색해하고 어려워했던 태도는 어느새 사라지고 지금은 우쿨렐레, 리코더, 노래 부르기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역지로 학습을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멀리 떨쳐버리곤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애’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면 온 가족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 특별한 캠핑 경험, 한 뼉 더 성장한 아이들

지난 11월 말에는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캠핑을 통해 아이들은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부모님들은 “과연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우려하면서도 “아니야, 잘해낼 거야” 하는 한 조각 믿음을 가지고 캠핑에 참여시켰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과자와 음료수 등 평소 먹고 싶었던 간식과 저녁식사를 위한 장보기를 마친 뒤 설레는 마음으로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식사 후 마시멜로도 구워먹고, 몸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코코아도 마시며 캠핑다운 캠핑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엄마 곁을 떠난 탓에 잠자리에 들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거나 잠을 이루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캠핑 경험 후 아이들에게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혼자 타지 못했던 아이가 “엄마 나 혼자 타고 올게”라고 말하거나 “엄마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 또 가고 싶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룻밤의 캠핑 체험으로 아이들은 한 뼉 더 성장해 있었습니다.



▲ 사회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캠핑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겨울,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전화기에는 불이 납니다. “2024년에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나요?”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느린학습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의 부모님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느린학습 아동들을 위해, 그리고 아동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복지팀 문주영



## 소리 없는 세상에 살고 있던 ‘타망’에게 들려온 희망의 노래

네팔의 ‘고도난청’ 청력장애 아동 타망(Tamang)의 인공와우 수술 이야기



▲ 엄마와 타망

네팔 판자촌에는 웃는 모습이 귀여운 다섯 살 타망(Tamang)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타망의 엄마는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이 느린 아이가 걱정되어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고도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고도난청은 오토바이나 진공청소기 같은 큰 소리도 아주 가까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청력장애를 의미합니다.

### 네팔 판자촌 소리 없는 세상에 놓인 타망

‘고도난청’ 청력장애로 인해 타망은 아무런 소리를 듣지도, 그로 인해 목소리를 내어 말하지도 못하며 오로지 몸짓과 행동으로만 소통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타망의 인공와우 수술을 권하였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엄마에게 한쪽 귀 수술에만 2,000만 원이 넘게 드는 수술비용은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일을 찾으러 나간 타망의 아빠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 데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 타망을 향한 도움의 손길

이 안타까운 소식은 2명의 후원자들에게 전해졌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타망은 인공와우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MRI, 청력 테스트, 정선건강 검진 등 각종 검사를 완료하고 지난 8월 마침내 성공리에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술 경과를 관찰하며 인공와우를 조율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매일 언어치료를 통해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리를 조금씩 듣기 시작하여 “바이바이” “마마”와 같은 짧은 음절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도움으로 아이는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만약 이번 지원이 없었더라면, 아이가 겪게 될 미래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아들의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여행과 같은 선물을 제공해준 홀트아동복지회와 2명의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후원자님께서 직접 불러 전달해준 노래는 타망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듣는 음악이 될 것입니다. 타망을 지원해준 한국의 후원자님, 홀트아동복지회의 담당자님, 네팔 의료진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표합니다.”

- 타망 엄마의 감사 편지



▲ 수술 전 검사 모습 (MRI)



▲ 수술 직후 모습



▲ 언어치료 받는 모습

### 타망에게 펼쳐질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타망은 지금부터 1년 동안 언어치료와 함께 수술 받은 한쪽 귀에 대한 추적관찰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타망이 엄마와 함께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해외사업장에서 돌보는 아이들 중에는 타망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빈곤 가정의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글 아동복지팀

# 세상에 하나뿐인 '선인장 텀블러'와 함께하는 '기델 어른의 빈자리' 캠페인

홀로 서야 할 자립준비청년에게 '기델 어른'이 되어주세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매년 보육원을 떠나 홀로서기를 강요받는 약 2,6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을 나누며 위로받고 싶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자랑하며 칭찬받고 싶은, 오로지 내편인 어른이 곁에 있길 바라지만 '자립'을 하게 되면 기델 어른 없이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해야만 합니다.

## '기델 어른'이 되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는 혼자라고 생각해서 더욱 힘들었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기델 어른이 되어주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생계비·의료비 지원, 진학·취업준비·자기계발비 지원 등의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 전부터 진로·고민상담 등 멘토링을 통해 정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사회복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들 개인별 사례관리를 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캠페인



▲ 선인장 텀블러

## '선인장 텀블러'를 소개합니다.

'기델 어른의 빈자리' 캠페인 굿즈로 제작된 선인장 텀블러는 110년 전통의 스위스 보틀 브랜드 SIGG(지그)의 사회공헌협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인장 텀블러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500ml 용량에 원터치 보온·보냉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자립준비청년 작가 SKI의 그림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미혼한부모가 직접 제작한 천연가죽 스트랩 장식(탈부착 가능)을 달아 텀블러의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매월 2만 원 정기후원으로 자립준비청년의 내일을 응원할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캠페인 '기델 어른의 빈자리', 그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든든한 기델 어른이 되어주세요.

## 모티브 '선인장'에 담긴 스토리

선인장 텀블러의 메인 모티브 '선인장'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견뎌내고, 떨어져 나간 조각에서 다시 싹을 틔워 자라난다는 점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디자이너를 꿈꾸는 자립준비청년 작가 'SKI'가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캠페인 굿즈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 Motive

#### 「선인장」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견뎌낸다. 떨어져 나간 조각에서 다시 싹을 틔워 자라난다.

### Story

“여섯 살에 혼자가 되었어요. 스스로 살아 가려고 심없이 달렸죠. 하나를 이루려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어요.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헤어드레서로 일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건 그림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를 꿈꿨습니다.”

-작가 'SKI'



## 선인장 텀블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립준비청년 지원 캠페인 '기델 어른의 빈자리'에 매월 2만 원의 정기후원으로 함께해주는 분들에게 선인장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 및 안내사항은 하단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해서 더욱 힘들었을 이들, 기델 어른이 있다면 자립준비청년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응원하기



글 나눔기획팀 옥지희



## 한부모 자립을 응원하는 ‘HD현대1%나눔재단’ 플라마켓 열려

풍성한 나눔이 있는 따뜻한 연말 행사 ‘HD현대1%나눔재단 GRC 플라마켓’

지난 12월 13~14일 이틀간 HD현대 글로벌 R&D센터(GRC,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HD현대1%나눔재단 사옥)에서는 연말을 맞아 따뜻한 온기가 물씬 풍기는 ‘HD현대1%나눔재단 GRC 플라마켓’이 열렸습니다.

‘HD현대1%나눔재단’이 GRC 입주 1주년을 맞이해 사회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플라마켓을 기획한 것인데요. 이 뜻깊은 행사에 홀트 아동복지회의 한부모셀러 16팀이 참가하여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부모셀러들에게 작품 판매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작품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 지원

플라마켓은 GRC 1층 아산홀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HD현대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행사장을 오픈하였습니다.

덕분에 행사 첫날에는 1,000명 정도의 고객이 방문한 데 이어 이틀날까지 누적 방문객이 총 1,8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한부모셀러들에게 플라마켓 판매용 작품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했으며, 당일 판매 수익금 또한 참여한 한부모셀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단단한 부모-똑똑한 엄마’ 지원사업

한편, HD현대1%나눔재단은 2023년부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부모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단단한 부모-똑똑한 엄마’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술교육을 받은 한부모들은 플라마켓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들은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경험해 봄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판매기술을 배우는 등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부모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후원해주신 HD현대1%나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플라마켓 참여 한부모 소감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소도 정말 좋았고 HD현대 임직원분들이 많이 구매해주시고 적극 도와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마쳤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듬뿍 느끼고 돌아갑니다. 셀러로서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제품 개발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랑 함께 왔다고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조사에 도움 주신 분들, 그리고 아이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 도와주신 HD현대 임직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홀트아동복지회에서도 늘 아낌없이 지원하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D현대1%나눔재단 홍석연 책임 인터뷰



**Q. HD현대1%나눔재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HD현대1%나눔재단은 22개 그룹사, 7,620명의 임직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소외계층을 도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저는 재단 외에도 그룹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사회공헌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Q. 사내 임직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회사 내에서 플라마켓이 진행된 것은 처음이라 사내 임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와주었어요.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행사에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셀러분들이 준비한 제품이 더해져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내년에도 꼭 플라마켓 행사를 진행해달라는 임직원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행사는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나요?**

**A.**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HD현대 사옥 입주 1주년도 기념하면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행사로 ‘플라마켓’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장애인이나 한부모 등 사회취약 계층에게 자립을 위한 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되지만, 정작 그분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팔 만한 곳을 찾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라마켓을 마련해 한자리에서 그분들의 핸드메이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 끝으로, 플라마켓을 기획한 담당자로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행사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가 좋아서 너무 기뻐합니다. 혹여 행사에 참여하신 많은 셀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행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참여한 임직원들도 만족한 행사로 끝나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꼭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셀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글 나눔기획팀 옥지희

홀로 아이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낸 엄마를 응원해주세요.

미혼한부모 응원하기



# 예배로 함께해주신 덕분에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웃을 섬기는 홀트가족사랑예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이자 CCM 가수인 박요한 목사님과 함께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홀트가족사랑예배인데요. 가정의 건강한 회복과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꿈꾸는 간증과 찬양이 있는 콘서트 형식의 나눔 예배입니다.



홀트가족사랑예배는 지금까지 70곳이 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3,0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해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추운 겨울날에도 이 세상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 박요한 목사의 <기대> 중에서

20여 년 동안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박요한 목사는 자신의 특별한 성장기를 성도들과 나누며 ‘주님이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을 기대한다’고 찬양합니다.



▲ '홀트가족' 현판 기증식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해외빈곤아동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복음적 가치 아래 이웃을 섬기는 일에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 나눔기획팀 김지민



## 특별한 순간을 ‘사랑으로 바라보다’

재능후원자 임진우 ‘러뷰아트’ 대표의 나눔 이야기

누구에게나 기억하고 싶은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작품으로 남긴다면 더 소중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행복하고 기쁜 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전하는 작품 제작으로 홀트아동복지회의 재능후원에 참여하는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캘리그래피 작가로 활동 중인 임진우 러뷰아트 대표인데요, 지금 임진우 재능후원자의 나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특별한 재능후원의 시작

2018년 어느 날, TV 다큐멘터리에서 홀트아동복지회의 스토리를 보고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임 대표는 홀트아동복지회의 ‘특별한 후원’에 참여하는 후원자와 아동을 위해 기념액자를 선물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100건의 작품을 제작해주었습니다.

### 러뷰아트의 출발, 생명 탄생의 순간을 기념하다

회사명 러뷰아트(LOVIEWART)는 ‘사랑을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임진우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었던 마음을 리마인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 기억, 생각, 순간 같은 무형의 것들을 유형화하고자 기획했던 것이 러뷰아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러뷰아트의 첫 작품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기억하는 출산 기념액자 제작이었습니다. 기념액자를 시작으로 아기발도장, 캘리그래피 등 시간이 흘러도 그 순간의 기억을 간직한다는 의미를 담아 작품 제작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임진우 대표의 작품



▲ 후원증서를 전달받은 모습



▲ 임진우 대표가 작업하는 모습

### 러뷰아트,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다

임진우 대표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디자인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 관련 서적 출판, 디자인 강의 등으로 바쁜 30~4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결혼도 하고 세 자녀의 아빠가 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날들을 돌아보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진우 대표는 ‘가족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러뷰아트’ 창업의 계기입니다. 임진우 대표는 자신과 같은 분야의 진로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고민만 하기보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다만, 포기하면 안 돼요”라며 진심어린 조언을 남겨주었습니다.

### 특별한 후원 캘리그래피 기념액자 후기



▲ 서울후원회 김경란 후원자  
▶ 이희수 후원자



“제 후원이 ‘특별한 후원’이 되었고, 특별한 선물까지 함께 받게 되어 정말 뜻깊었습니다. 이번 캘리그래피 액자 선물을 통해 재능후원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고, 후원의 형태가 단순히 금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멋진 선물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 길인 후원자

오늘 캘리그래피 액자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선물을 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캘리그래피에도 정성이 깃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진 후원자

###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끝으로 임진우 대표는 나눔과 후원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후원하는 것도 자신의 에너지가 충분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흘러야 나눔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러뷰아트’를 검색하면 마음을 전하는 임진우 대표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자신의 재능을 뜻깊은 일에 함께하며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선물하는 재능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합니다.

재능후원 및 특별한 후원 관련 문의 : 나눔지원팀 02)331-7072 / sponsor@holt.or.kr

글 나눔지원팀 김수진

# 전국후원회 나눔의 향기가 더욱 퍼지기를

‘2023 홀트 전국후원회 수련회’ 현장 속으로

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는 1973년 서울후원회를 시작으로 대구후원회·부산후원회·대전후원회·다문화강원후원회·인천후원회·포항후원회·광주후원회·하남후원회·고양후원회·달구벌후원회, 그리고 2015년 창립된 본리후원회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50년의 기간 동안 각 지역의 아동과 가족을 돕기 위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들의 참된 봉사과 따뜻한 사랑은 지역사회를 넘어 해외아동을 돕는 손길로까지 이어져 홀트아동복지회의 뜻깊은 사업들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2023 홀트 전국후원회 수련회 단체사진

## 후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

지난 10월 25~26일, 1박2일 일정으로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인천후원회 주최로 전국 12개 후원회의 회원들과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 김은호 전국후원회장, 김경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전 전국후원회장), 박상신 인천후원회장, 신성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천교회 목사, 이행숙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홀트 전국후원회 수련회는 한부모가정의 자립 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모금행사와 올해 전국후원회가 한마음으로 도왔던 위기가정아동과 가족의 긍정적 변화, 1995년 월체어농구단 창단 이후 농구단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응원한 후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공로패, 감사패 수상자들과 우리회 신미숙 회장. (왼쪽부터) 대구후원회 이나희 고문, 인천후원회 박상신 회장, 신미숙 회장, 인천후원회 박용량 고문, 인천후원회 이정옥 회원, 포항후원회 김경임 고문



▲ 대구후원회의 장기자랑 장면

## 홀트를 사랑하는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참석자들의 포토존 기념촬영이 끝난 후 이어진 홀트아동복지회 박요한 홍보대사님의 노래와 함께하는 특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슴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명예멘토이자 케이치엔터테인먼트 대표인 강도현 MC의 재치 있는 행사 진행으로 참석자들 모두 즐거움과 기쁨을 한가득 누렸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장 한쪽에서는 한부모셀러들의 소규모 마켓이 열려 그동안 믿음과 용기로 응원해주신 후원회원들에게 직접 만든 제품들을 선보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신생아일 때 ‘365베이비케어키트’ 양육물품을 지원받으며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었던 한부모셀러 박지혜, 장미나, 이정미님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전문성과 사업성을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날 후원회원들의 적극적인 구매와 플리마켓 수익금의 일부가 기부되어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돕는 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한부모셀러들의 마켓 참여 모습

## 더 큰 가족,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하는 전국후원회

이번 행사를 위해 서울후원회 서영자 고문의 1,000만 원 후원과 친환경제품 전문 브랜드 와프랩, 인천지역의 후원자 및 현대제철을 비롯한 후원기업의 참여로 3,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역사가 70년을 향해 가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홀트아동복지회가 실시하는 진정성 있는 사업들에 뜻을 모아주시는 후원자님들이 함께 계시기에 이런 역사를 쓸 수 있었다”고 회고한 뒤 “50년의 긴 기간 동안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전국후원회의 모든 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오랜 가족이자 사랑으로 하나되어 주신 전국후원회의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전국후원회 나눔의 향기가 더욱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글 나눔지원팀장 권혜란



▲ 서울후원회



▲ 인천후원회

본부



새음학교, 지리산 나눔 중주 위기가정아동 지원

11월 1일,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인 새음학교(교장 이해리)와 '위기가정아동 지원'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새음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지리산 중주를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홀트아동복지회와는 2017년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해 해마다 나눔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리엇 인터내셔널, 2023년 자선 달리기 행사 수익금 기부

11월 2일, 메리엇 인터내셔널이 올림픽공원 내 피크닉광장에서 임직원 자선 달리기 행사 '2023 로드 투 기부(Road to Give)'를 개최하고 행사 수익금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했습니다. 2014년부터 연례행사로 진행해온 'Road to Give'는 건강도 챙기고 나눔도 실천하는 기부행사로, 올해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4개 호텔 임직원 총 250여 명이 달리기와 걷기에 참여해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본부



오시훈 에듀윌 교수, 수업료 및 저서 판매 수익금 후원

12월 12일,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오시훈 교수가 홀트아동복지회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오시훈 교수의 강의료 및 저서 판매 수익금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약속했던 매년 기부 공약을 이행한 것이어서 더욱 뜻깊은 기부가 되었습니다.



김기범 공인노무사, 한부모가정 '가족애(愛)너지캠프' 후원

12월 13일, 김기범 공인노무사가 한부모가정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홀트아동복지회 고액기부자 탐리더스로 위촉된 김기범 위원은 한부모가정 후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홀트아동복지회의 아동과 가족을 돕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미혼한부모가정의 심리·정서지원사업의 일환인 '가족애(愛)너지캠프'에 전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망원새마을금고, 홀트패밀리샵 후원 협약

11월 18일, 망원새마을금고(이사장 이창환)와 '위기가정아동 지원' 홀트패밀리샵 후원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 마포구 지역 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과 아동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골프 동호회 '골프클럽 크레이지' 위기가정 후원

12월 6일, 골프 동호회 '골프클럽 크레이지'가 연말을 맞아 동호회원들의 참여로 모금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골프클럽 크레이지 회원들이 골프 라운딩에서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모은 것으로, 홀트아동복지회의 통합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지적장애인 후원

12월 20일,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지적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된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의 따뜻한 나눔은 매년 지적장애인의 자립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후원을 통하여 지적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은아(주)엠이 대표, 홀트아동복지회에 물품 후원

12월 21일, 방은아(주)엠이 대표가 홀트아동복지회의 한부모가정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후원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방은아 대표는 2023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쳐(주)엠이의 친환경주의 토탈케어 브랜드 '와프랩'의 샴푸, 바디워시, 트리트먼트 등 총 8,710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홀트아동복지회에 제공했으며, 홀트아동복지회 자립준비청년 대학지원사업 '드림플러스' 최종 평가회에도 후원자로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했습니다.

## 본부



### 박화연 후원자, 위기가정의 의료비 5,000만 원 후원

12월 15일, 박화연(84세) 후원자가 전국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화연 후원자는 “평소 아이들이 좋아했던 딸의 뜻을 기리고자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해운조합, 국내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후원

12월 21일, 한국해운조합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2017년을 시작으로 시작된 한국해운조합과의 후원은 매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속되었으며, 올해에도 연말을 맞이하여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국내 아동·청소년에게 지원 될 예정입니다.

## 충청지부



### 가온나래어린이집, 미니장터 판매 수익금 전달

가온나래어린이집이 취약계층 아동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가온나래어린이집의 원아와 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미니장터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충청지부에서는 원아들에게 기관 소개와 나눔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이 기부한 후원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홀트일산요양원



###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 개최

12월 14일, 홀트일산요양원에서는 대성산업, 한국머스크, 한국오도텍의 후원으로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2001년 고(故) 하만경 박사(나이키 미국 본사 부사장 역임)에 의해 시작되어 올해로 22년째 열리고 있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는 2011년 하만경 박사가 작고한 뒤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이 이어받아 행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날 이용인들은 선물과 간식을 제공받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 부산지부



### 비기닝하루, 미혼한부모가정 위해 바자회 수익금 전달

11월 30일, 여성전용 필라테스센터를 운영 중인 ‘비기닝하루 필라테스(원장 장현정, 부산시 수영구 소재)’가 홀트아동복지회의 미혼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비기닝하루 필라테스는 매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바자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들과 함께 진행한 소규모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이루어진 이번 기부를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와 의미 있는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 대구지부



### DGB대구은행, 미혼한부모가정 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12월 14일, DGB대구은행이 미혼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후원금 3,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성장 가능 환경을 구축하는 ‘뱅크잇(BANKIT)’ 참여로 마련됐으며, 준비되지 못한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가정에 ‘지킴이키트’(분유, 기저귀, 물티슈, 내의 등 출산·육아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전주영아원



### 아이엠아이 임직원,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진행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엠아이(아이템매니아와 게임매니아 운영 기업)’의 임직원들이 산타가 되어 전주영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가을소풍에 함께하며 원아들과 쌓았던 소중한 추억을 잊지 않고 이번에는 산타 차림으로 원아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한 아름 안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원아들은 영아원을 찾아준 산타들을 위해 멋진 율동과 노래를 선보이고 임직원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 홀트대구후원회 고(故) 이영상 고문 공로패 전달

12월 6일, 홀트대구후원회 창립회원으로 1974년부터 약 50년 동안 홀트대구후원회 임원 및 회원으로 활동하신 고 이영상 고문의 공적을 기리는 공로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후원과 모금에 앞장서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신 고 이영상 고문을 대신해 아들인 정은재 경북과학대학교 총장님에게 공로패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경로의 달’ 맞아 ‘운봉사진관’ 사진촬영 행사 실시

10월 23일, 경로의 달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지원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장수를 염원하는 ‘운봉사진관’ 사진 촬영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아뜰리에 서면점과 자원봉사자들이 장소협찬과 행사진행을 도왔으며, 덕분에 지역 내 어르신들의 멋진 모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11월 14일에는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 60명에게 사진이 담긴 액자를 전달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연말 감사행사 ‘홀트추억다방’ 진행

12월 8일, 한 해 동안 홀트강동복지관을 이용한 발달장애인과 부모 100명을 초청하여 자녀와 함께 옛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복고 감성 연말 감사행사 ‘홀트추억다방’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행사로 포토존, 놀거리존, 먹거리존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 홀트아동복지회의 명예멘토인 강도현 MC가 음악다방 DJ로 참여해 감성 편지 낭독과 추억의 음악감상,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하며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고(민)스톱 프로젝트’ 실시

차의과대학교와 협력해 사회적으로 고립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독거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고(민)스톱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인지플러스’ ‘행복플러스’ ‘화려한 외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협력해 ‘건강플러스’와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아침들



한부모가정 자조모임과 아동그림 공모전 시상식 개최

12월 7일, 퇴소 한부모가정의 자립역량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자조모임을 개최했습니다.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부모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아침새싹 그림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최종 선정된 11명의 아동들에게 상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자조모임과 그림 공모전은 한부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운뜰



입·퇴소자 레고랜드 나들이

10월 28일, 현 입소가정 및 퇴소한 가정들과 함께 강원도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한부모와 아동들은 레고랜드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뷔페도 즐기며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소 후에도 고운뜰 식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으며 퇴소자 모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입·퇴소자들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클로버



‘도담도담 부모교육’ 진행

대전클로버는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긍정적으로 자녀 양육하기’를 주제로 한 ‘도담도담 부모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잘 놀며 탈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총 6개의 소주제로 진행된 부모교육을 통해 입소자들은 발달 단계를 고려한 훈육, 화를 다스리는 방법,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를 위한 매일의 실천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구클로버



달서소방서와 함께하는 합동 소방훈련

11월 17일, 대구클로버 입소자와 직원들은 대구달서소방서 소방관들의 참관 하에 2023년 동절기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화재 상황에 대비하여 입소자와 직원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실제와 동일한 상황에서 진행된 훈련을 통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을 높이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시가족센터



홀트다문화 강원후원회 ‘2023 다문화부부 웨딩촬영’ 후원

춘천시가족센터는 홀트다문화 강원후원회의 지원으로 ‘2023 다문화부부 웨딩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홀트다문화 강원후원회는 경제적 이유로 결혼식이나 웨딩촬영을 진행하지 못한 다문화 부부들을 17년 동안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부부들은 후원을 통해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전통 한복 대여비와 결혼사진 촬영비, 메이크업 비용까지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 나눔은 함께할수록 커집니다

## 국내후원

위기가정아동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지역사회 등 가정과 아동을 지원합니다.

## 해외후원

홀트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사업장에서 교육지원, 가정자립을 실시합니다.

## 결연후원

국내·해외아동결연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육비와 주거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고액후원

기부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고액후원자 모임입니다.

## 교회후원

교회가 이웃과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 기업후원

사회공헌 협력사업, 중소기업인 나눔실천 캠페인(홀트패밀리샵)을 통해 후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후원

생일, 첫돌, 결혼, 팬덤 등 나만의 기념일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념일 캠페인입니다.



•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재윤이네 가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 신청 바로가기



## 홀트패밀리#이란?

뜻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중소기업인 나눔 실천 캠페인입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업, 학원, 병원, 카페 등 규모와 종류는 달라도 따뜻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당신은 나눔 가족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후원문의 02)331-7000

# 나의 반쪽을 위한 KB금쪽같은 펫보험

내 발소리만 들려도 현관에 코를 박고  
하루 온종일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나의 반쪽인 너를 평생 지켜주고 싶으니까

아프지 않게, 고생하지 않게  
항상 든든하게 지켜줄게



KB금쪽같은  
펫보험은?

- 1 반려동물치료비 (특약)
- 2 무지개다리위로금 (사망) (특약)
- 3 반려동물양육자금 I, II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특약)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 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87277호(2023.06.05~2024.06.04)